

피겨용어,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 덕분에 국내에서 피겨스케이팅은 비인기 종목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나 당당히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인기 스포츠가 됐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개막이 4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피겨 팬들은 김연아는 물론 금메달 다툼을 펼칠 이사다 마오(20)와 안도 미카(23) 등 맞수들의 소식에도 귀를 증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수준의 팬도 있는 반면 뒷북에 입문한 초보 팬들은 여전히 암호 같은 피겨 용어에 고개를 간직하게 마련이다. 서양에서 시작한 운동이어서 대부분 용어가 외국어이고, 끄적이 비슷한 한국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충분한 내공(?) 없이는 익숙해지기 어려운 게 피겨다.

러츠 점프 - 김연아의 '교과서 점프'로 유명

악셀 점프-앞으로 뛰어올라 0.5바퀴 더 회전

명칭 대부분 처음 사용자의 이름에서 따 와

피겨를 접할 때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 용어는 악셀(Axel), 러츠(Lutz), 루프(Loop), 플립(Flip), 토루프(Toe Loop) 등 주로 점프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여기에 더블(double 2회전)과 트리플(Triple 3회전), 쿼드러플(Quadruple 4회전) 점프를 비롯해 인 에지(In Edge)와 아웃 에지(Out Edge), TES, PCS 등 낯선 외국어와 각종 약자를 보다 보면 한숨까지 나오운다.

우선 점프들의 명칭은 대부분 그 기술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왔다.

여섯 가지 점프 기술 가운데 유일하게 앞으로 보고 뛰어올라 다른 점프보다 0.5 바퀴를 더 도는 '악셀 점프'는 노르웨이 출신의 악셀 파울센(1855-1938)이 1882년 처음 시도했던 기술이다. 이후 파울센의 이름을 따서 악셀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김연아의 '교과서 점프'로 유명한 '러츠 점프'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의 알로이스 러츠(1898-1918)가 고안한 점프로 1913년 처음 실전에서 사용됐다. 스케이트 앞날을 얼음에 찍어 추진력을



얻는 토토(toe) 점프의 하나로 중심축이 되는 발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아웃 에지를 사용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하지만 고안자와 점프의 이름이 다른 때도 있다. 독일 출신의 남자 피겨 선수인 베르너 리트베르거(1891-1975)가 1910년 처음 선보인 '루프 점프'가 대표적이다.

루프는 점프 직전에 몸을 100도 돌리는 동작이 필요한데 이것을 '스리던'이라고 부른다. 스리던은 말 그대로 몸을 돌리는 순간 얼음에 스케이트날에 의해 숫자 '3'과 비슷한 모양이 그려지는 것을 본떠 만든 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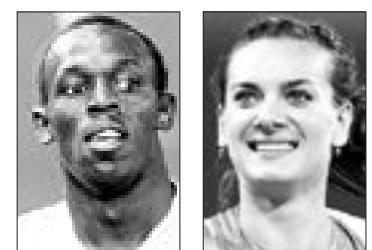
여자 선수들의 필수 요소로 손꼽히는 '비엘만 스핀'도 비슷한 경우다. 한족 스케이트 부츠를 머리 위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회전하는 비엘만 스핀은 스위스의 대표적 여자 싱글 선수인 데니스 비엘만(48)의 이름이 붙여졌지만 누가 고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비엘만이 국제대회에서 유행시키면서 '비엘만 스핀'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비엘만도 이 기술을 팀 동료에게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2010 SK 핸드볼 큰잔치 충남도청과 원광대 경기에서 충남도청 윤시열이 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사인 볼트〉 〈이신바예바〉

볼트·이신바예바

'2009년 올해의 선수'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24·자메이카)와 여자 장대높이뛰기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28·러시아)가 2년 연속 국제체육기자연맹(AIPS)이 선정한 '2009년 올해의 선수' 남녀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m(9초58)와 200m(19초19)에서 세계기록을 작성하며 3관왕에 올랐던 볼트는 1일(한국시간) 발표된 96개국(614명) 체육담당 기자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 1천 866표를 얻어 아르헨티나 축구의 간판 리오넬 메시(885표)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올해의 남자 선수'에 뽑혔다.

또 2009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골든리그 5차 시리즈 '벨트 클리시 취리히'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5m06으로 세계기록을 경신한 이신바예바도 '올해의 여자 선수' 투표에서 1천 900표를 득표, 높이뛰기 1인자 블랑카 블라시치(크로아티아-889표)를 꺾고 1위에 올랐다.

볼트와 이신바예바는 지난해 투표에서도 나란히 1위에 오르면서 2년 연속 '올해의 남녀 선수'로 뽑히는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이신바예바는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연합뉴스

삼척시청, 핸드볼큰잔치 개막전 신승

대구시청 24-21 꺾어

(6골)의 중거리슛을 앞세워 대구시청을 24-21로 물리치고 첫 승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진가를 확인한 정지해도 6골을 넣어 삼척시청의 승리를 힘을 보탰다.

삼척시청은 3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개막전 여자부 B조 첫 경기에서 박지현(5골), 유현지

/연합뉴스

반면 덴마크에서 돌아온 꽈查看全文이 하순영(1골)을 선발로 내세운 대구시청은 탄탄한 수비력을 뽐냈지만 공격을 조율할 선수가 없어 무릎을 끊고 말았다.

/연합뉴스

영 / 화 / 안 / 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메가박스

콜롬버스시네마

하미시네마

씨너스전대



제일시네마

| M관 | 전 우치 (12세) | 최고급관 |
|----|-------------------------|------------------------|
| 2관 | 아바타 (12세) | |
| 3관 | 나인 (15세) | |
| 4관 | 설록홀즈 (12세) | |
| 5관 | 전 우치 (12세) | |
| 6관 | 엔빈과 슈퍼밴드2(전체) | / 아바타 (12세) |
| 7관 | 전 우치 (12세) | |
| 8관 | 걸프렌즈 (15세) / 설록홀즈 (12세) | /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12세) |
| 9관 | 아바타 (12세) | |

| 1관 | 설록홀즈 (12세) |
|-----|---------------------------------|
| 2관 |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12세) / 뉴문 (12세) |
| 3관 | 아바타 (12세) |
| 4관 | 아바타 (12세) |
| 5관 | 엔빈과 슈퍼밴드2 (전체) |
| 6관 | 전 우치 (12세) |
| 7관 | 전 우치 (12세) / 아바타 (12세) |
| 8관 | 나인 (15세) |
| 9관 | 전 우치 (12세) |
| 10관 | 아바타 (12세) |

| 1관 | 뉴문:트와일러잇2 (12세) |
|-----|-----------------|
| 2관 | 전 우치 (12세) |
| 3관 | 나인 (15세) |
| 4관 | 모범시민 (15세) |
| 5관 | 전 우치 (12세) |
| 6관 | 2012 (12세) |
| 7관 | 아바타 (12세) |
| 8관 | 아바타 (12세) |
| 9관 | 전 우치 (12세) |
| 10관 | 설록홀즈 (12세) |

| 1관 | 나인 (15세) |
|----|------------|
| 2관 | 아바타 (12세) |
| 3관 | 전 우치 (12세) |
| 4관 | 아바타 (12세) |
| 5관 | 설록홀즈 (12세) |
| 6관 | 전 우치 (12세) |
| 7관 | 아바타 (12세) |

| 1관 | 아바타 (12세) |
|----|------------------------------|
| 2관 | 아바타 (12세) |
| 3관 | 나인 (15세) |
| 4관 | 설록홀즈 (12세) |
| 5관 | 뉴문:트와일러잇2 (15세) / 모범시민 (15세) |
| 6관 | 엔빈과 슈퍼밴드2 (전체) |

제로온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총장로 3가 VARS 전화번호 ☎ 227-1960

* 모범시민 전화번호 ☎ 227-1960

ARS 전화번호 ☎ 227-1960

인터넷 사이트 http://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색깔있는 영화산 www.cinus.co.kr /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 메밀이 산책하고 다니는 곳은 34번길

* 모범시민 전화번호 ☎ 227-3756

제일시네마 2층 ☎ 227-1960

인터넷 사이트 http://www.jellcinema.co.kr

제일시네마 2층 ☎ 227-1960